

군산사랑상품권 성과... 지자체 벤치마킹

1~2차 발행금액 310억원 전액 판매... 지자체 방문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추진한 군산사랑상품권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전국 각 지자체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사업추진 2개월 만에 '1~2차 발행금액 310억원 전액 판매'를 기록하며 지역화폐의 성공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고자 전북 무주, 순창, 전남 광양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찾고 있다.

군산시의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와

철저한 유통체계 사전 완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군산사랑상품권 전체 판매액의 92%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미용실 등을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7~8월 강임준 군산시장 및 각 읍면동 직원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었으며 그 결과 현재 7,600여개의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확보됐다.

군산시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구매자와 가맹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타 지자체의 상품권 환전이 3일 이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익일 처리되도록 금융권과의 협의를 이끌어냈으며 당일 처리를 요구하는 가맹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일부 금융기관(새마을금고)은 당일 환전 처리도 가능하다.

군산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자화폐 도입을 위해 지난달 18일 한국조폐공

사와 모바일 전자화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2,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할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자립경제 기반 조성과 함께 경제 활성화 사업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사랑상품권 유통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시민들의 생산·소비를 증대시키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또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등 지역자금의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는 익산역, 중앙체육공원 등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였다.

그림자 조명으로 지역 홍보

익산시, 익산역 등에 설치 시민호응 얻어

익산시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림자 조명'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림자 조명은 일반 조명이던 문구나 이미지가 담긴 필름을 정 착해 원하는 장소에 비추는 LED 조명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익산시는 2017년부터 익산역, 중앙체육공원 등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따뜻한 감성적 문구를 선물하고 있다.

체전 종료 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힐링 문구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

'괜찮아 힘든 길도 끝은 있어', '힘들었던 오늘 하루 내 비타민은 너야, 우리 언제나 사랑하자', 등의 문구는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익산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열린어린이집 22개 선정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18년 군산시 열린어린이집' 22개소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공간을 개방하고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시에서는 지난달 열린어린이집을 신청한 2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의 기본요건 및 5개 세부신청 항목(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형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2018년도 신규 14개소, 재선정 8개소 등 총 22개소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지정된 22개소는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되며 2019년 10월 평가 후 재선정 및 신규선정의 절차가 진행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향후 1년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부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재우탁 심사기준 반영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양천 복지관광공장은 "열린어린이



군산시는 열린어린이집 22개소를 선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집은 어린이집 개방과 학부모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더욱 확대해 영유아와 가족, 지

역사회가 만족하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구직자 프로그램 호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 내 중장년층을 위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김인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및 일 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부터 기업포지(예정)자 대상 전직스쿨 프로그램,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재취업지원 등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6~9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찾은 중장년층의 수만 236명으로 상담 건수는 353건이며 그중 54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군산공장 퇴직자 김모(47)씨는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진행하는 생애경력설계와 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일희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줄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남균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다양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시민친화적 청사 건립 위한 중간보고회

익산시 신청사 건립방향 설정을 위한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최근 익산 시청에서 개최됐다.

신청사 건립은 현재 청사의 건립방향 설정과 규모 및 소요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 및 직원 설문조사 등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개최했던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과 8월에 걸쳐 설문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견수렴 결과 청사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

을 최대한 확보(지하주차장 등)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을 위한 주민편의 시설로 다목적광장 및 소공원, 작은도서관,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등을 원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번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 주민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청사 건립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익산시와 함께 익산시의회, LH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늘 중간보고회 내용과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친화적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행정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에서는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방문, 자원봉사자와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해 열 다섯번째로 열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 거리로 전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국화전시장과 축제장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등을 관람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격

려하는 한편,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이 조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교통관리 등 국화축제 마지막까지 행사에 만전을 다해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제의 남은기간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행사

익산소방서는 지난 2일 동우화인켄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증 받았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은 현재 설치율이 50%도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급될 예

정이다.

익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대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라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금년에만 2건이 있어 생명을 지킨 사례가 있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연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